

원픽

one pick:
내가 최고로 뽑은 것!

| 고등 국어 |

고전 문학

고전 문학 사용 설명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고전 문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성

본책(문제)

내신과 수능 준비 학습!

- 교과서, 수능 및 모의고사 빈출 작품 수록
- 갈래별 대표 작품과 개념 적용 문제 수록
- 2022 예시 문항, 최신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된 신유형 문제와 지문 수록

정답과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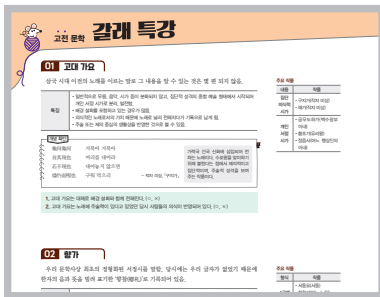
제재 핵심 분석과 정확한 문제풀이!

- 제재별로 필요한 정보 핵심 분석
- 정확한 정답 해설, 필요한 오답 해설

학습 순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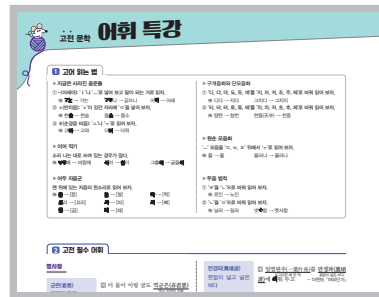
- 1 학습 계획표 작성
- 2 갈래 특강 학습
- 3 어휘 특강 학습
- 4 실전 문제 풀기
- 5 제재 분석 학습
- 6 정·오답 분석 확인

우리 교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고전 문학 갈래 특강

작품을 이해하는 데 선행
되어야 할 갈래별 특징을
제시하여 갈래와 문학사의
이해 속에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고전 문학 어휘 특강

고전 문학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수록하여
고전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커스 IN / 포커스 OUT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안, 밖의 배경지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핵심 포인
트를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공부

포커스 IN 갈래 고대 가요, 서정 가요
성격 서정적, 채담적, 애상적
주제 일과 사별의 정한(情恨)

핵심 포인트

- 공무도하가
- 화자가 처한 상황
술에 취해 이 몸/물 건너러고
하는 남편을 만류하고 있음.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남편의 이혼으로 인한 절망감과
체념적 탄식이 드러남.

출제 포인트 Pick

7. '물'의 의미와 이미지 변화 과정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소재는 화자를 단절시키고, 임의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띤 '물'의 이미지는 서정 전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등장한다.

이쪽과 강 저쪽을 갈라놓는 존재는 이혼의 상징이다.

출제 포인트 Pick

작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
식화하여 제시했습니다.

▲ 갈래별 실전 문제

이 책 의 차례

- **계획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일정 수립하기
- **학습일** 실제로 공부한 날을 적기

고전 문학 갈래 특강	6
고전 문학 어휘 특강	16

I. 고전 운문

			계획일	학습일	
고대 가요	01	공무도하가(백수 광부의 아내) 정읍사(어느 행상인의 아내)	22	/	/
향가 (신유형)	02	신라 향가의 정립 과정과 특징 - 찬기파랑가(총담사) - 제망매가(월명사)	24	/	/
고려 가요	03	가시리(작자 미상) 서경별곡(작자 미상)	27	/	/
	04	정석가(작자 미상)	30	/	/
경기체가	05	한림별곡(한림 제유)	33	/	/
악장	06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35	/	/
시조	07	오백 년 도읍지를~(길재)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선인교 나린 물이~(정도전)	37	/	/
	08	어저 내 일이야~(황진이) 뫼버들 갈희 것거~(홍량) 이화우 훗썩릴 제~(계량)	39	/	/
(신유형)	09	「도산십이곡」의 창작 배경 도산십이곡(이황)	41	/	/
	10	어부사시사(윤선도) 어부단가(이현보)	44	/	/
	11	개를 여나몬이나 기르되~(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돌도~(작자 미상)	47	/	/

				계획일	학습일
가사	12	상춘곡(정극인)	49	/	/
	13	사미인곡(정철)	52	/	/
	14	규원가(허난설헌)	55	/	/
	15	선상탄(박인로)	58	/	/
	16	만언사(안도환)	61	/	/
민요	17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64	/	/

II. 고전 산문

				계획일	학습일	
설화	01	조신의 꿈(작자 미상)	68	/	/	
가전체 소설	02	국선생전(이규보)	71	/	/	
고전 소설	03	남염부주지(김시습)	74	/	/	
	04	조웅전(작자 미상)	77	/	/	
	05	장화홍련전(작자 미상)	81	/	/	
	06	호질(박지원)	85	/	/	
	07	심청전(작자 미상)	89	/	/	
	08	이춘풍전(작자 미상)	93	/	/	
	(신유형)	09	우리 이야기 문학 속 변신 모티프 김원전(작자 미상)	96	/	/
	고전 수필	10	한중록(혜경궁 홍 씨)	101	/	/
판소리	11	춘향가(작자 미상)	104	/	/	

III. 갈래 복합

				계획일	학습일
시가 복합	01	되들에 동난지이 사오~(작자 미상) 고공가(허전) 산민(김창협)	110	/	/
시가+산문	02	한거십팔곡(권호문) 포화옥기(이학규)	113	/	/
시가 복합	03	'밤'과 '꿈'을 소재로 활용한 상사의 노래 - 상사별곡(작자 미상) - 사랑이 거짓말이~(김상용) - 몽훈(이옥봉) - 솜에 단니는 길히~(이명한)	117	/	/



01 고대 가요

삼국 시대 이전의 노래를 이르는 말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몇 편 되지 않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무용, 음악, 시가 등이 분화되지 않고, 집단적 성격의 종합 예술 형태에서 시작되어 개인 서정 시가로 분리, 발전함. 배경 설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의식적인 노래로서의 가치 때문에 노래로 널리 전해지다가 기록으로 남게 됨. 주술 또는 제의 중심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개념 확인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으리 - 작자 미상, 「구지가」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되어 전하는 노래이다.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다는 점에서 제의적이고 집단적이며, 주술적 성격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주요 작품

내용	작품
집단 의식적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지가(작자 미상) 해가(작자 미상)
개인 서정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도하가(백수광부 아내) 황조가(유리왕) 정음사(어느 행상인의 아내)

- 고대 가요는 대체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 ×)
- 고대 가요는 노래에 주술력이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

02 향가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를 말함.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향찰(鄉札)'로 기록되어 있음.

형식	4줄로 된 향가 초기의 형태인 4구체와, 4구체에서 10구체로 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형태인 8줄로 된 8구체,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향가의 완성된 형태인 10구체 향가가 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가는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불교적인 노래가 가장 많음. 그중 「안민가」는 유일하게 유교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다양한 계층의 작가가 존재하나, 현전하는 향가의 작가는 대부분이 승려와 화랑임.

개념 확인

군(君)은 어비여 / 신(臣)은 득스살 어시어
 민(民)은 얼홀아회고 향살디 / 민(民)이 득술 알고다
 구믈스다히 살손 물생(物生) /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짜홀 브리곡 어디 갈데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향놀든
 나라악 태평(太平)향니잇다

- 총담사 지음, 양주동 해독, 「안민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였던 총담사가 왕명을 받아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리를 노래한 향가이다. 현전 향가 중 유일하게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으로, 강한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작품

형식	작품
4구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동요(서동) 헌화가(어느 노인) 도솔가(월명사)
8구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죽지랑가(득오) 처용가(처용)
10구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왕생가(광덕) 제망매가(월명사) 천기(파랑가(총담사) 안민가(총담사)

- 향가는 고유 문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향찰로 표기한 우리 고유의 시가이다. (○, ×)
- 대부분의 향가와 비슷하게 불교적·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

개념 확인 정답

1. ○ 2. ○ 3. ○ 4. ×

03 고려 가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속요(俗謠)’라고도 함.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던 민요가 궁중의 속악 가사로 수용되고 개편되었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악장가사>, <악학궤범>, <시용향악보> 등에 채록되어 전하고 있음.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도막(절 또는 연)으로 나뉘는 분절체로, 3음보격에 의한 3·3·2조가 주조를 이룸. • 대부분의 작품에 여음(후렴구)이 있으며, 이때 이 후렴구는 음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주제와는 관련이 없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아쉬움, 삶의 애환 등 평범하고 소박한 평민들의 숨김없는 생활 감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 국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그 가치가 큼.

개념 확인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투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문학성과 음악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5. 평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삶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고려 가요가 유행하였다. (○, ×)
6. 후렴구는 고려 가요가 문자로 정착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 ×)

04 경기체가

13세기 초에 「한림별곡」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시가 양식.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이 노래에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혹은 ‘경기하어(景幾何如)’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이를 줄여서 붙인 것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연이 중첩되어 있는 연장 형식을 취하고 있음. • 한 연은 6행으로 되어 있으며, 제4행과 제5행에서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는 분절 형식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후기 신흥 사대부들의 활기찬 감정과 의식 세계를 노래함. • 선비들의 학식과 체험을 노래한 것으로 글, 경치, 기상 등을 제재로 삼았음. •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함으로써 신흥 사대부들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음.

개념 확인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노스륙(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단한림(陳翰林) 상운주필(雙韻走筆)
 통기퇴칙(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
 엽(葉) 금혹사(琴學士)의 옥순문생(玉筍門生) 금혹사(琴學士)의 옥순문생(玉筍門生)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현전하는 경기체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당시 문인들의 자부심과 호화롭고 향락적인 상류층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다.

- 한림 제유, 「한림별곡」 제1장

7. 경기체가는 주로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
8. 후렴구에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가 제시되어 경기체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 ×)

주요 작품

내용	작품
삶의 애환	• 청산별곡(작자 미상)
이별의 정한	• 가시리(작자 미상) • 서경별곡(작자 미상)
남녀 간의 사랑	• 동동(작자 미상) •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경기체가의 형성 배경

고려 중엽 이후 무신(武臣)들이 집권하게 되자 대부분의 문신(文臣)들은 관계(官界)를 떠나 초야에서 은둔하였지만, 일부 문신들은 집권층들의 문화를 드나들며 신흥 사대부 계층을 형성하게 됨. 경기체가는 이들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득의에 찬 삶과 향락적인 여흥을 위하여 창출한 시가 양식임.

주요 작품

- 한림별곡(한림제유)
- 죽계별곡(안축)
- 상대별곡(권근)

개념 확인 정답

○ 8 × 7 ○ 9 ○ 9



05 한시

원래 중국의 전통 시가를 말하지만, 국문학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선조들의 작품 중, 중국의 한시 작법에 따라 지은 한문으로 지은 시를 말함.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구가 5글자로 된 오언과 7글자로 된 칠언이 있으며, 일정한 위치에 같은 운을 두는 압운법을 지킴. • 4행이면 절구, 8행이면 율시, 12행 이상이면 배율이라 함. • '선경 후정'이나 대구법, '기-승-전-결'에 따라 사상을 전개할 때가 많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적 도덕주의, 임금에 대한 충절, 남녀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예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룸. •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나 개인적인 심회 등 주제가 매우 다양함.

개념 확인

兩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고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 정지상, 「송인」

고려 시대 한시의 대표작으로, 임과 이별하는 애달픈 정서를 애뜻하게 표현한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9. 한 구에 5글자로 된 4구의 한시인 '오언 절구'이다. (○, ×)
10. 싱그러운 자연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여 이별의 한을 부각하고 있는 한시이다. (○, ×)

주요 작품

연대	작품
고구려	• 여수장우중문시(을지문덕)
신라	• 제가야산독서당(최치원) • 추야우중(최치원)
고려	• 송인(정지상) • 사리화(이재현) • 부벽루(이색)
조선	• 무어별(김제) • 빈녀음(허난설헌) • 탐진촌요(정약용)

06 시조

고려 말기에 완성된 이후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전통적인 가락(3·4조 또는 4·4조)에 맞춘 우리의 대표적인 정형시를 말함.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가 기본형으로, 4음보의 울격을 이룸. • 가장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종장의 첫 음보로, 3음절로 고정되어 있음. •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러한 형식에 파격이 생기면서 엇시조, 사설시조 등이 나타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가 일반 평민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임. 처음에는 주로 귀족 계급인 양반들이 짓고 부르던 것이, 조선 영·정조 이후에는 평민들이 짓고 부름으로써 범국민적으로 시조를 즐기게 됨. • 유교적 층의 사상에서부터, 자연 속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삶, 남녀 간의 사랑까지 그 내용이 다양함.

개념 확인

백설(白雪)이 죽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梅花)는 어딴 곳에 피엿논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호노라

- 이색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에 직면한 지식인의 고뇌가 잘 형상화 된 시조이다.

11. 내용의 성격에 따라 회고가로 나눌 수 있다. (○, ×)
12. 시조에 있어 가장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종장의 첫음절 '반가운'이다. (○, ×)

시조의 형성 배경

고려 후기에 이르러 신흥 사대부들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경기체가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또 다른 표현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창안된 국문학 양식. 이러한 시조는 형식의 간결함이 사대부의 검소하고 소박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알맞은 형태였기 때문에, 국문 서정시의 주류로 부상하여 조선 50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됨.

개념 확인 정답

× '21 ○ '14 ○ '10 × '6

개념 확인

일신(一身)이 스자 **훙**엿더니 물것 계워 못 견딜쇠
 피(皮)스겨 가튼 가랑니 보리알 가튼 슈통니 줄인니 갓 깐니
 잔 벼룩 굴근 벼룩 강 벼룩 왜(倭) 벼룩 기는 놈 뛰는 놈에 비
 파(琵琶) 가튼 반대 삭기 사령(使令) 가튼 등에아비 갈따귀 삼
 의약이 셴 박희 높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부리 뽀족한 모기 다
 리 기다란 모기 야윈 모기 살진 모기 글입에 뽀록이 주야(晝夜)로 빈 때 업시 물거니 쏘거니 빨거
 니 뜻거니 심(甚)한 당(唐)빌리 이보다 어려우라
 그중에 차마 못 견딜손 유월(六月) 북(伏)더위에 쉬파런가 **호**노라

사람을 괴롭히는 '물것'이 많아서 살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작품이다. 즉,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작자 미상

주요 작품

내용	작품
회고가	• 흥망이 유수 ^하 니~(원천석)
총절가	• 수양산 바라보며~(성삼문)
강호 한정가	• 강호사시개(맹사성)
연정가	• 동지사 ^돌 기나긴 밤을~(황진이)

- 13. 평시조와 비교할 때 중장이 글자 수의 제한 없이 길어진 엿시조이다. (○, ×)
- 14. 충효 사상이 아닌 실생활의 사실적 소재를 다룬 것으로 보아 중인이나 평민이 창작한 작품이다. (○, ×)

07 악장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에 쓰인 노래의 가사로, 조선 초기의 송축가를 이르는 말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틀은 없으나 형태에 따라 한시체, 속요체, 경기체가체, 신체 등으로 나뉨. • 기본형은 2구 2절씩, 변조형은 4구 이내나 이상, 또는 2절 이상으로 되어 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문물제도를 찬양하며 임금의 만수무강과 왕가의 번창을 기원하고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와 귀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작가층이 대부분 조선조의 권신들이었고 향유 계층도 특권 귀족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진정한 국민 문학으로 성장하기에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음. • 귀족들만이 향유하는, 목적성을 띤 문학이었던 악장은 얼마간 성행하다가 성종 때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음.

주요 작품

- 신도가(정도전)
-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 월인천강지곡(세종)

개념 확인

불휘 기픈 남근 **바**락매 아니 뭇^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ㄹ**래 아니 그츨^썩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제2장>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호**산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
 개국(累仁開國)**호**샤 복년(卜年)이 **ㄹ**업스시니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호**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락쇼셔 낙수(落水)에 산행(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제125장>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 조선을 건국한 육조의 사적을 찬양하고 후대 왕에게 왕업의 수호를 권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15. 화자는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고려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 ×)
- 16. 악장은 지나친 목적성과 향유 계층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일반화되지 못하여 소멸하게 되었다. (○, ×)

개념 확인 정답

○ '16. × '15. ○ '14. ○ '13.



08 언해

주로 중국어나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작품, 또는 번역하는 일을 말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창제 이후에 시작되었고, 16세기 이후에 대폭 확대됨. 훈민정음 창제 이후 수많은 한문 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번역 문학이 성행하게 되었음. • 언해의 확대는 한글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에게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한문 원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음.
----	--

개념 확인

清江一曲抱村流 **돌골 마룻 흥 고삐 막슬홀** 아나 흐르느니
 長夏江村事事幽 **긴 녀룻 강촌(江村)에 일마다 유심(幽深) 흥도다**
 自去自來堂上燕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희 저비오**
 相親相近水中鷗 **서르 친(親) 흥며 서르 갓갑느니 물 가운데 깃털머기로다**
 老妻畫紙爲碁局 **늘근 저지븐 죠희를 그려 장과파놀 땀골어놀**
 稚子敲針作釣鉤 **저른 아드른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골 낙슬 땀골다**
 多病所須唯藥物 **한 병(病)에 얻고져 흥는 바늘 오직 약물(藥物)이니**
 微軀此外更何求 **저구맛 모미 이바긔 다시 므스글 구(求) 흥리오**

한적하고 평화로운 강촌의 정경과 그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 두보, 「강촌」

17. 언해는 나라에서 직접 권장하여 번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 ×)

18. 언해는 문단으로 구분된 원문과 한글로 된 번역이 함께 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

09 가사

3·4조 또는 4·4조, 4음보의 연속체 시가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인 교술 시가임.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체의 운문으로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하며 행수에 제한은 없음. • 크게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나뉘는데 조선 전기는 정격 가사가 많고, 후기는 변격 가사가 많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내용 또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을 그리워하거나 자연을 노래한 서정적인 가사가 많음. •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생활에서 소재를 구한 서사적인 가사가 유행함. 이는 여성과 평민 작가층의 성장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과 동시에 주제와 표현 양식이 다변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음.

개념 확인

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흥**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 **흥**야 니별(離別) **흥**고
흥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죽흥**가마는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식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퇴야 어즈러이 구듯 **흥**디 /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작가가 동인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전라남도 창평에 낙향해 있을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노래한 작품이다.

- 정철, 「속미인곡」

19. 가사는 4음보 연속체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 ×)

20.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내방 가사이다. (○, ×)

주요 작품

번역서	작품
두시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망(두보) • 강촌(두보) • 강남봉이구연(두보) • 절구(두보)

가사의 형식

정격 가사	낙구가 시조의 종장처럼 3·5·4·3의 음수율을 지나는 가사
변격 가사	낙구가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가사

주요 작품

내용	작품
은일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춘곡(정극인) • 면양정가(송순)
유배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분가(조위) • 만언사(안도환)
기행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정철) • 일동장유가(김인겸)
내방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원가(허난설헌) • 계녀가(작자 미상)
전쟁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탄(박인로)
평민 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부가(작자 미상) • 용부가(작자 미상)

개념 확인 정답

17. ○ 18. ○ 19. ○ 20. ×

10 민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운율감을 기초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노래로, 서민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음.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조 또는 4·4조의 운율을 가지는 민속·음악·문학의 복합체임. • 후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창 방식이 달라지고, 교향창이나 선후창이냐에 따라 시가 형태가 결정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에 의한 기록과 무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옴. • 서민의 일상생활, 특히 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음. • 노래로 불리기에 적합하도록 울격이나 형식이 다듬어져 있어 대체로 일정한 정형성을 띰.

개념 확인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돌아 놓고 권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예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 작자 미상, 「논매기 노래」

이 노래는 논매기, 즉 논에서 잡초를 뽑는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로, 농사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민중들의 낙관적인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 21. 이 노래는 논에서 일할 때 부르던 노래로 일종의 노동요로 볼 수 있다. (○, ×)
- 22. 선창자가 앞소리를 부르고, 후창자가 뒷소리를 부르는 노래이다. (○, ×)

주요 작품

내용	작품	
기능요	노동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매기 노래 • 타작 노래 • 해녀 노래
	의식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신밧기 노래 • 상여 노래 • 달구질 노래
	유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강술래 • 널뛰기 노래 • 줄다리기 노래
비기능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 아리랑 • 밀양 아리랑 • 시집살이 노래 	

11 잡가

모든 잡다한 속요를 가리키던 말로,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개화기까지 유흥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소리꾼들이 부른 노래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용이나 형식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가사와 유사한 점이 많음. • 양반 문학의 영향을 받아 과도한 한시문을 차용함. • 가사보다는 통속적이고 민요보다는 세련된 것이 잡가임.
----	--

개념 확인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 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 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 년 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 작자 미상, 「유산가」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널리 불렸던 12잡가 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화창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 23. 잡가는 전문 소리꾼들이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부른 노래이다. (○, ×)
- 24. 잡가에서 한자어와 한글의 혼용은 상층 문화의 하층 문화에 대한 지향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 (○, ×)

잡가의 형성 배경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가사의 정형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갈래로,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유행하였으며 각기 독자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음.

주요 작품

- 유산가(작자 미상)

개념 확인 정답

21. ○ 22. ○ 23. ○ 24. ×



12 설화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사이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따라서 한 문화 집단의 풍습, 생활 감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며 구연함. 그리고 문학성이 있는 설화가 집성되어 작품을 구성할 때 설화 문학이라고 부름.

갈래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인식	진실성 중시	흥미 위주
시간과 장소		아득한 옛날, 신비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막연한 시간과 장소
증거물		포괄적(우주, 국가 등)	구체적(바위, 하천, 짐승 등)	없거나 보편적
주인공		신적 존재, 신성한 주인공	비범한 인물	평범한 인물
주인공의 행위		초능력 발휘	비극적 결말(한계성을 지닌 인간의 갈등과 좌절)	초월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함.
전승 범위		민족적	지역적	세계적

개념 확인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씨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인데, 여러 아우들과 노닐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밑 압록강 가에 있는 집 속으로 꺾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써, 천손 강림, 난생, 기아 등의 고대 서사 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영웅 서사 문학의 틀을 잘 갖추고 있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25. '주몽'의 일생을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
 26. '주몽'의 고귀한 혈통을 강조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 ×)

주요 작품

내용	작품
신화	• 단군 신화(작자 미상) • 주몽 신화(작자 미상) • 박혁거세 신화(작자 미상)
전설	• 조신 설화(작자 미상) • 김현감(작자 미상)
민담	• 아버지의 유물(작자 미상)

13 가전체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를 기록한 전기 형식의 글을 말함.

형식	• 전반부는 사물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후반부는 사신의 평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징	•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교술 문학임. •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성과 교훈성이 강함. • 의인화한 대상의 가계와 생애 및 성품, 공과를 서술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사물에 얽힌 근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 현학적인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주요 작품

- 국순전(임춘)
- 공방전(임춘)
- 국선생전(이규보)
- 청강사자현부전(이규보)
- 죽부인전(이곡)
- 저생전(이첨)
- 정시자전(석식영암)

개념 확인 정답

○ 25 ○ 26

개념 확인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 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돈(엽전)을 의인화하고 돈의 내력을 통해 재물에 대한 탐욕과 매관매직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가전체 소설이다.

- 작자 미상, 「공방전」

가전체 문학의 의의

고전 소설이 대부분 ‘~전’이라는 제목 아래 개인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허구적 서사 문학이라는 점에서 가전은 고전 소설과 연관성을 가진, 가전이 곧 고전 소설은 아니지만, 창의성이 상당히 가미된 허구적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전은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구실을 하였고 소설 문학에 한 단계 접근한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음.

- 27. 가전은 창의성과 허구성이 가미된 개인 창작물로, 소설 문학에 한 단계 접근한 문학 양식이다. (○, ×)
- 28.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풍자한다. (○, ×)

14 고전 소설

소설은 서사 문학의 한 장르로서, 인물과 사건 및 배경을 갖춘 이야기를 일컬음. 고전 소설이란 설화를 바탕으로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종류로, 갑오개혁 이전에 창작된 옛 소설을 말함.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주생전」과 「운영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행복한 결말을 맺음. •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 선과 악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많음. •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선징악의 도덕적 의식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음. • 시간적 배경은 다양하지만, 공간적 배경은 대체로 중국과 우리나라임. 보수적인 소설이 중국을 무대로 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하여, 진보적인 소설은 우리나라를 무대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작가는 대부분이 그 이름을 알 수 없어,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음.

개념 확인

교녀 심중에 기뻐하여 동청을 청하여 사 씨 없앨 꾀를 다시 의논하니 동청이 가로되 당나라 ‘사기’를 일러 측천무후를 애기하며 장주 죽임을 꾀했다. 교녀 사 씨의 시비 춘방을 시켜 약을 달이게 한 후 몰래 독약을 썼었다. 아들 장주는 약을 먹고 즉사하니 교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니 한림의 얼굴이 흠뻑으로 변하여 사유를 물으니, 납매가 가로되,
“소비가 문 앞을 지나다 우연히 바라본즉 춘방과 설매가 손짓을 하더니만 돌아가는 것을 보았으니 이 둘을 불러 물으면 짐작하실 듯하여이다.”

첩으로 들어온 교 씨의 모해를 받은 사 씨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내용으로, 인현왕후 폐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처첩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주요 작품

내용	작품
김시습의 금오신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
박지원의 한문 소설	호질, 허생전, 양반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등
군담 소설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 소대성전, 유충렬전 등
가정 소설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장화홍련전 등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배비장전, 응고집전, 장끼전, 토끼전 등

- 29. 처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가정 소설이다. (○, ×)
- 30. 악한 인물과 선한 인물의 대립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 ×)

개념 확인 정답

27. ○ 28. × 29. ○ 30. ×



15 고전 수필

수필은 그때그때 보고 느끼고 흥미 있는 것을 붓 가는 대로 산문으로 표현한 글임. 고전 수필은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수필’ 이외에도 잡록, 일기, 기행, 내간, 야담, 패설, 시화, 비평 등을 포함함.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이나 희곡처럼 일정한 형식을 지니지는 않지만, 작품마다 나름의 형식을 가짐. • 그중 형식적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문 수필인 ‘설(設)’은 앞부분에 사실(경험)이 제시되고, 뒷부분에 의견(감정)이 제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시대 후기로 오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사회 변동에 따른 평민 의식의 발현과 산문화 경향에 따라 일기나 기행문, 서간문 등의 다양한 수필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되었음. • 처음에는 한문 수필이 많았으나 국내 및 일본, 중국을 배경으로 한 기행문이 등장하는 한편,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한글 수필도 다수 등장하였는데 궁중 수필과 내간체의 문학성이 탁월함.

개념 확인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 모 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者)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 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가세가 빈한하고 자녀도 없는 과부로 살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지내던 글쓴이가 오랫동안 아끼던 바늘이 부러져 쓰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마음을, 바늘을 의인화하여 제문 형식으로 쓴 수필이다.

- 유 씨 부인, 「조침문」

31. 바늘을 부러뜨린 아쉬움을 의인화의 방법과 제문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 설(設)이다. (○, ×)
 32. 바느질 도구를 제재로 한 내간체 수필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가 두드러진다. (○, ×)

16 판소리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흥과 함께 생성·발전해 온 전통적 연행 예술로서, 소리꾼인 광대가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말과 노래로 이야기를 연창하는 구비 서사시를 뜻함. ‘판소리’의 명칭 중 ‘판’이란 싸움판, 씨름판의 판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 곧 무대를 의미하며, ‘소리’는 노래와 사설을 의미함.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자와 해학 등 골격적인 표현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상이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음. • 한자 성어나 고사, 욕설 등이 많이 쓰임. • 사설이 음악과 결합하여 아나리와 창(唱)으로 구연이 되는데, 율문은 낭송이나 음악적 선율과의 결합이 쉬움. • 판소리 사설에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혼용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골격적 장면에서는 구어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전되면서 특정 부분의 내용이 부연·확장·축소·제거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 다양하게 유입되어 끊임없이 다듬어져 옴. • 판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각 대목은 전체 주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상당한 독립성을 지님. • 표면적으로는 봉건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새 가치관을 제시함.

개념 확인 정답

31. ○ 32. ×

개념 확인

[아니리]

또 한 군사 하는 말이, “애, 이 녀석아. 아, 자식 두고 생각하는 정, 거 줄장부의 말이로구나. 전장에 너 죽어도, 이 녀석아, 후사는 잇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롭다.” 또 한 군사 하는 말이,

[중모리]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부모 일찍 여의고, 일가친척 하나 없이 혈혈단신 이내 몸이, 그저 만난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양전하여, 집안 큰일 지극정성, 떠날 뜻이 하나 없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다정한 부부 되려 할 때, 뜻밖에 급한 난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나팔을 떼며 불며 들어왔은 나를 끌어내니, 아니 올 수 없더구나.” - 작자 미상, 「적벽가」

적벽 대전의 전야(前夜)에 조조의 군사들이 제각기 고향의 부모처자와 이별하고 전쟁터에 나온 사연과 설움을 늘어놓는 군사 설움 타령으로, 원작인 「삼국지연의」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듯 「적벽가」는 여느 판소리와는 달리 외국의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희극미를 향상화하였다.

- 33.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말한다. (○, ×)
- 34. 이 글의 내용을 창으로 부를 때는 여성 창자가 전쟁의 비극이 드러나도록 부르는 것이 좋다. (○, ×)

17 민속극

가장(假裝)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전승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극'이라고도 함. 그 유형으로 무극, 가면극, 인형극, 창극 등이 있음.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면극에서 사용되는 가면의 명칭은 다양함. 하나의 극은 대체로 여러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장은 거의 독립적임. 배우의 대사는 고정되어 있으나, 즉흥적인 부연 창작도 가능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나아가 서민들을 관중으로 삼아 그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음. 관중들이 적극적으로 극에 참여하기도 함. 해학과 풍자로 상류 계층과 모순된 사회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주요 작품

내용	작품
가면극	• 봉산 탈춤
	• 양주 별산대놀이
	• 통영 오광대
	• 수영 들놀이
	• 하회 별신굿 탈놀이
인형극	• 고성 오광대
	• 꼭두각시놀음

개념 확인

꼭두각시 여러 해포 만에 만나긴 만났으나 그도 또한 나 역시 근심이오.

표 생원 부인의 말이 그러하니 말이오. 내가 그전에 작은집을 하나 얻었소.

꼭두각시 아이고 들던 중 상쾌한 말이오. 이 형편에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집을 얻었으니 재목(材木)이나 성하며, 양지바르고 또 장인들 담겨 났겠소.

표 생원 어으? 아 이게 무슨 소리여. 장은 무슨 장이며 재목은 무슨 재목? 떡 줄 놨은 생각도 않았는데 김칫국만 먼저 마시네, 소실(小室)을 얻었다단 말이여.

꼭두각시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소리요. 이날껏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이런 험한 꼴을 보자고 영감을 찾았구려.

전통극 중 현전하는 유일한 인형극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민중 정서가 잘 나타난 작품이다. 작품의 막(거리)은 각각 독립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줄거리가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제5막 표 생원

- 35. 이 작품의 각 거리는 모두 독립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
- 36. 이러한 민속극은 공연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개념 확인 정답

33. ○ 34. × 35. ○ 36. ×



1 고어 읽는 법

▶ 지금은 사라진 음운들

- ① •(아래아): 'ㅏ'나 'ㅑ'로 넣어 보고 말이 되는 거로 읽자.
예) ㄱ눈 → 가는 ㄱ투니 → 같으니 아뤼 → 아래
- ② △(반치음): '△'이 있던 자리에 'ㅇ'을 넣어 보자.
예) 한숨 → 한숨 몸소 → 몸소
- ③ ㅃ(순경음 비음): 'ㅓ'나 'ㅕ'로 읽어 보자.
예) 고ㅃㅏ → 고와 더ㅃㅏ → 더워

▶ 이어 적기

- 소리 나는 대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 예) ㅂ락매 → 바람애 식미 → 십이 그츨씨 → 굿을씨

▶ 어두 자음군

- 맨 뒤에 있는 자음의 된소리로 읽어 보자.
- 예) 뜰 → [뜰] 밭 → [밭] 짝 → [짹]
 소리 → [꼬리] 싸 → [따] 싸 → [빠]
 뽕 → [꿈] 뻐 → [때]

▶ 구개음화와 단모음화

- ① '디, 다, 더, 도, 듀, 데'를 '지, 자, 저, 조, 주, 제'로 바꿔 읽어 보자.
예) 디다 → 지다 그치디 → 그치지
- ② '티, 타, 터, 토, 투, 테'를 '치, 차, 처, 초, 추, 체'로 바꿔 읽어 보자.
예) 탕턴 → 창천 텡똥(天中) → 천중

▶ 원순 모음화

- 'ㄹ' 모음을 'ㄹ, ㅂ, ㅍ' 뒤에서 'ㄱ'로 읽어 보자.
- 예) ㅍ를 → ㅍ를 물러나 → 물러나

▶ 두음 법칙

- ① 'ㄹ'을 'ㄴ'으로 바꿔 읽어 보자.
예) 로인 → 노인
- ② 'ㄴ'을 'ㅇ'으로 바꿔 읽어 보자.
예) 날러 → 일러 넷스람 → 옛사람

2 고전 필수 어휘

명사형

군은(君恩)
임금의 은혜

예)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
이샷다 역시 임금의 은혜
- 송순, 「면앙정가」

꽃(고지)
꽃

예) 그 고지 삼동(三同)이 꺾거시아
꽃이 세 묶음 피어만
- 작자 미상, 「정석가」

나릿(물)
냇물

예) 정월(正月)사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냇물은
- 작자 미상, 「동동」

너름
여름(夏, 계절)

예) 긴 너름 강촌(江村)에 일마다 유심
(幽深) 흐도다 여름
그윽하다
- 두보, 「강촌」

도화(桃花)
복숭아꽃(붉은색,
봄의 계절감)

예) 백구(白鷗)야 현사(玄沙)하랴 못 미들손
도화(桃花) | 로다 아단스러울까
- 이황의 시조
복숭아꽃

만경파(萬頃波)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예)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
波)에 적위 두고 조그마한 배 한 척 끝없이 넓은 바다
- 이현보, 「어부단가」

되
산

예) 잔 들고 혼자 먼 되흘 벼라보니
산
- 윤선도, 「만흥」

무심(無心)
욕심이 없음.

예)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
옥 무심(無心)하애라 달 밝으니
(인간사에) 욕심이 없애라
- 이현보, 「어부단가」

백구(白鷗)
흰 갈매기

예)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젯는
가 제 젯는가 흰 갈매기
- 윤선도, 「어부사시사」

사창(紗窓)
여인의 방

예) 사창(紗窓) 여인 잠을 슬뜨리도 깨
오논고야 여인이 거처하는 방 잘못 든 잠 알뜰히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삼경(三更)
늦은 밤(밤 11시부터 새벽 1시)

예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
(銀漢)이 삼경인 제 배꽃 달빛이 비치고 은하수
자정을 알리는 때에 - 이조년의 시조

세우(細雨)
가랑비

예 세우(細雨)조춌 뿌리논다
가랑비조차 뿌린다
- 송순, 「면앙정가」

소(沼) / 지당(池塘)
연못

예 말가한 깊은 소에 온갖 고기 뛰노
맑은 연못
는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수간모옥(數間茅屋)
초가집 = 모침

예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
몇 칸짜리 초가집 푸른 시냇물
水) 얹피 두고 - 정극인, 「상춘곡」

시비(柴扉)
① 사립문
② 옹고 그림

예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댤 곳츠란
사립문 두구 뿔어진 곳
뉘 쓸려노 - 송순, 「면앙정가」

실슬(蟋蟀)
귀뚜라미

예 넙 그린 상사몽(相思夢)이 실슬(蟋
귀뚜라미
蟀)이 넙시 되어 - 박효관의 시조

여름
열매(果)

예 꽃 도쿄 여름하느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제2장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아름다운 자연

예 연하(煙霞) 일휘(日輝)는 금수(錦
안개와 노을 수놓은 비단
繡)를 재멋는 듯 - 정극인, 「상춘곡」

이제(夷齊) = 백이
숙제
시조 있고 절개가 곧
은 충신

예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
백이와 숙제
齊)를 한(恨)호노라 - 성삼문의 시조 한탄하노라

이화(梨花)
배꽃(흰색, 봄의 계절감)

즈믄 / 온
천(1000) / 백(100)

청악립(靑莢笠)
갓
녹사의(綠蓑依)
도롱이

촉(燭)
촛불

행화(杏花)
살구꽃(분홍색, 봄의 계절감)

홍진(紅塵)
속세
산림(山淸, 강호, 풍월, 청풍명월)
풍류로 즐기는 자연

황운(黃雲)
누렇게 익은 곡식

흥망(興亡)
나라가 흥하거나 망함. 즉, 나라가 잘 되어 일어남과 못 되어 없어짐.

예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잠
배꽃이 비 내리듯
고 이별(離別)호 님 - 계량의 시조

예 즈믄 힐 장존(長存)호살 약(藥)이라
천 받잡노이다
- 작자 미상, 「동동」

예 청악립(靑莢笠)은 써 잇노라, 녹사
갓 도롱이
의(綠蓑依) 가져오나
- 윤선도, 「어부사시사」

예 촉(燭) 줍고 갓가이 스랑힐 제 암향
촛불 그윽한 향기
(暗香) 쫓츌 부동(浮動)터라
- 안민영, 「매화사」

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
복숭아꽃과 살구꽃
裏)에 뛰어 잇고 - 정극인, 「상춘곡」

예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속세
(生涯) 엇더호고 - 정극인, 「상춘곡」

예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
자연
樂)을 미랄 것가 - 정극인, 「상춘곡」

예 황운(黃雲)은 쫓 엇지 만경(萬頃)
누렇게 익은 곡식 넓은 들
의 편거기요 - 송순, 「면앙정가」
퍼져 있는가?

예 아희야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물
고려 왕조의 흥하거나 망함
어 무슴호리오 - 정도전의 시조



용언(동사, 형용사형)

괴다

- ① 사랑하다
- ② 발효하다(술이 익다)

예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 정서, 「정과정」

예 꺾 괴여 님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발효하여
 밧타 노코 - 정극인, 「상춘곡」

녀다(니다, 네다)

- ① 다니다
- ② 살아가다

예 니믈 혼 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
살아가고자
 이다 - 작자 미상, 「동동」

다호라
같다

예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벵
아아 바람에
 룬 빗 다호라 - 작자 미상, 「동동」
같구나

돌다(도타)
졸다

예 인생 세간(人生世間)의 도흔 일 하
인간 세상
 건마는 좋은 - 정철, 「성산별곡」
많건마는

디다
[떨어]지다

예 꽃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지고
 쏘렷논디 - 정철, 「사미인곡」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예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
생겨날 때
 니 - 정철, 「사미인곡」

수이
쉽게

예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 |
푸른 시냇물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 황진이, 「시조
쉽게

슬허하다
슬퍼하다

예 쑤길이 자취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
슬퍼하노라
 라 - 이명환의 시조

어리다
어리석다

예 어리고 우환(迂闊)홀산 이 너 우회
어리석고
 더니 업다 - 박인로, 「누항사」
더한 사람이

어엿브다
불쌍하다

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불쌍한
쫓을, 따를
 - 정철, 「속미인곡」

좋다(조타)
깨끗하다

예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깨끗한
 들고 - 정극인, 「상춘곡」

하다
많다(多), 크다(大)

예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걱정, 근심 많기도 많았겠구나
 - 신희의 시조

ㅎ다
~하다(爲)

예 봄이 왓다 ㅎ되 소식(消息)을 모로
해도
 더니 - 신희의 시조

- 혀다
- ① (불을) 켜다
 - ② (악기를) 연주하다
 - ③ (바람을) 쐬다
 - ④ (숫자를) 세다

예 바람도 혀려 ㅎ고 돌도 마즈려코
바람 쐬려
달 맞으려 하고
 - 송순, 「면앙정가」

헨사ㅎ다(헨스롭다)
 야단스럽다(공정적
 의미): 자연의 아름
 다음 예찬

예 조물(造物)리 헨스ㅎ야 빙설(氷雪)
조물주가
 노 꾸며 내니 아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 내니 - 송순, 「면앙정가」

헤다 / 헤음(헬, 헬가
 림)
 생각하다 / 생각(근
 심, 걱정)

예 단표누항(簞瓢陋巷)에 хот튼 헤음
생각
 아니 ㅎ닉 - 정극인, 「상춘곡」

조사 및 어미

~고져
~하고자(소망, 의도)

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의
다히고져 - 정철, 「관동별곡」
달고 싶다

~도곤(~라와)
~보다(비교 부사격 조사)

예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흥터
니 만승(萬乘)이 이만^{삼정승보다}하라
중국의 황제 - 윤선도, 「만흥」

~다히(~다이)
~의, ~쪽(~답게)

예 무등산(無等山)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히로 버더 이셔
- 송순, 「면앙정가」

~르세라
~할까 두렵다(걱정)

예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머무를까 두렵구나}세라
- 정철, 「관동별곡」

~제
~때

예 강두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 이별
할 ^{강나루} 제
때 - 안도환, 「만언사」

~라니와
물론이거니와

예 슈품(手品)은^{손재주}라니와 제도(制度)도
^{물론이거니와} 라지^{격식}
고^{갖추었구나} - 정철, 「사미인곡」

~하 / ~곰
~야(호격 조사) /
~좁(강세 접미사)

예 들하 노피곰 도드샤 / 어기야 머리
달^{달님이시여} 하 ^{높이높이} 곰 ^{멀리멀리} 비취오시라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음사」

부사형 및 기타

고초
곳곳이

예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
자 - 정철, 「사미인곡」
곳곳이

고터
다시

예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
^{더위와 서늘함} 터 오니 - 정철, 「사미인곡」
다시

매양
늘, 항상

예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 하여 있
어 - 안민영의 시조
항상

모처라
마침

예 모처라 밤일식만정 히혀 낮이런들
눈 ^{마침} 우일 ^{실컷} 번^{웃길}과라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슬꺾장
실컷

예 막음의 머근 말숨 ^{사뢰다(말씀을 올리다)} 슬꺾장 슬자 히
니 - 정철, 「속미인곡」
실컷

외오
홀로

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
논고 - 정철, 「사미인곡」
홀로 그리워하고

저근덧, 건듯
잠깐 사이에, 어느
덧, 문득

예 저근덧 밤이 드리 풍낭(風浪)이 명
^{잠깐 사이에} (定) 히 거늘 - 정철, 「관동별곡」

천만, 아조, 노여
전혀

예 번로(煩勞) 히 막음의 벼릴 일리 아조
업다 - 송순, 「면앙정가」
전혀

어즈버, 모처라, 두
어라, 아희야
시조나 가사에서 감
탄을 나타내는 말

예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썸이
^{아아} 런가 히 노라 - 길재의 시조
태평했던 시절

상고 시대

BC 2333년
고조선 건국

BC 57년
신라 건국

BC 37년
고구려 건국

BC 18년
백제 건국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

-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원시 종합 예술이 점차 개인적, 서정적 시가로 분리, 발전하면서 고대 서정 가요가 발생하게 됨.
- 한자의 보급으로 한문학이 발전하였고,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함.
- 신라 시대에는 국문학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인 향가가 등장함.

수록 작품 목록

01 공무도하가(백수광부의 아내)

교과서

기출



정읍사(어느 행상인의 아내)



02 신라 향가의 정립 과정과 특징

- 찬기파랑가(총담사)



- 제망매가(월명사)



고려 시대

918년
고려 건국

- 한문학이 발달하여 한시가 활발하게 창작됨.
- 평민들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고려 가요가 유포·전승됨.

수록 작품 목록

03 가시리(작자 미상)

서경별곡(작자 미상)

04 정석가(작자 미상)

05 한림별곡(한림 제유)

고전 운문



조선 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1170년
무신의 난

1392년
조선 건국

1443년
훈민정음 창제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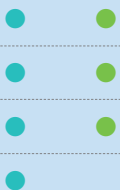
1894년
갑오개혁

- 무신의 난 이후 신흥 사대부들이 경기체가를 창작·향유함.
- 고려 말부터 시조와 가사가 지어지기 시작함.

- 조선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악장이 등장함.
-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한시를 번역한 언해가 크게 성행함.
- 고려 말엽에 등장한 시조와 가사는 더욱 번성하여 주요한 시가 갈래로 부상함.

-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며 문학 담당층이 평민과 부녀자로 확대되면서 시조와 가사 작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변화가 일어남.
- 다양한 민요가 창작·향유됨.

교과서 기출



수록 작품 목록

교과서 기출

06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	●
07	오백 년 도읍지를~(길재) /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 / ○	●
	선인교 나린 물이~(정도전)		●
08	어저 내 일이야~(황진이) / 뒷버들 갈희 것거~(홍량)	● / ○	●
	이화우 훗썩릴 제~(계량)	●	●
09	「도산십이곡」의 창작 배경 / 도산십이곡(이황)		●
10	어부사시사(윤선도) / 어부단가(이현보)	● / ○	●
11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작자 미상) / 나모도 바히돌도~(작자 미상)	○ / ●	●
12	상춘곡(정극인)	●	●
13	사미인곡(정철)	●	●
14	규원가(허난설헌)	●	●
15	선상탄(박인로)		●
16	만연사(안도환)	●	●
17	시집살이 노래(작자 미상)		●

이

공무도하가/ 정읍사

포커스 IN

가 갈래 고대 가요, 서정 가요
 성격 서정적, 체념적, 애상적
 주제 임과 사별한 정한(情恨)

나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성격 서정적, 비유적, 기원적
 주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

정답과 해설 2쪽

핵심 포인트

가 공무도하가

• 화자가 처한 상황

술에 취해 ①()을/를 건너려고 하는 남편을 만류하고 있음.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남편의 ②() (으)로 인한 절망감과 체념적 탄식이 드러남.

나 정읍사

• 화자가 처한 상황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③()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행상 나간 남편의 ④()를/을 기원함.

[현대어 풀이]

나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돌으시어
 어기야 멀리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 곳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 **저재:** 저자에. 시장에.
- **즌 닻:** 진 곳. 어두운 곳 혹은 위험한 곳.
- **점그를세라:**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찌할꼬.

-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나 前腔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즌 닻을 드티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닻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井邑詞)」

포커스 OUT

가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허영게 센 미치광이 남자(백수광부)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렸지만, 채 붙잡지 못해 그 미치광이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뜯으면서 '공무도하'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슬퍼하며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가르쳐 주고, 노래 곡조를 「공후인」이라 이름 지었다.

나 작품 제목에 쓰인 '정읍'은 전주에 소속된 현(縣)으로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서 돌(망부석)로 남아 있다고 한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음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고난도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공무도하가」를 이해하는 데는 배경 설화가 도움이 돼요.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강가에서 배를 손질하는데, 웬 백수광부, 즉 머리 하얀 미치광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낀 채 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말렸지만 그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아내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후 자신도 따라서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물'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정서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한편 백수광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백수광부가 고조선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위를 잃게 된 무당이라는 학설, 백수광부 부부를 신화적 존재로 해석하는 학설 등이 있어요.

- ① 1행의 '물'은 남편을 뒤따르며 그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내의 사랑이 담긴 소재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설화 속 아내의 행동을 고려할 때 3행의 '물'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과 동시에 남편과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4행에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원망과 질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백수광부를 무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가)에 드러나는 죽음의 원인이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된 처지의 좌절감에 있다고 해석하겠군.
- ⑤ 설화 속 인물들을 신화적 존재와 관련짓는 관점에서 보면 (가)는 술의 신과 이별하게 된 음악의 신이 부른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군.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었다. 이 고을 사람 중 한 명이 먼 곳으로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을 상황을 진흙에 더럽혀질 것에 비유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한편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던 산 위에는 망부석이 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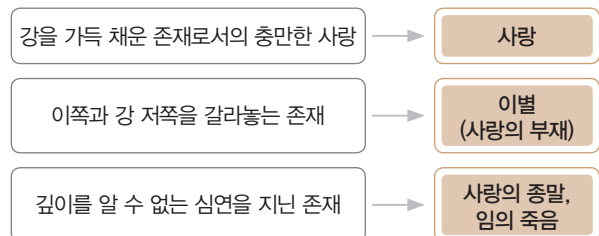
- ① ㉠에서는 남편이 밤길을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아내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 ② ㉡을 통해 멀리 행상을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③ ㉢은 남편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은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남편이 물건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⑤ ㉤에서 '가는'의 주체를 남편으로 해석하면 어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아내의 우려를 알 수 있다.

8

습제 포인트 Pick

가 '물'의 의미와 이미지 변화 과정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소재는 '물'이다. 이 물이 임과 화자를 단절시키고, 임의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의 이미지는 시상 전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한다.



나 시상 전개 방식

